

8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보는 경건훈련-칼빈과 웨슬리의 관점에서-

유태주 교수 / 한일장신대학교, 조직신학

1. 머리말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있어서 경건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경건을 어떻게 적용하는 훈련을 할 것인가? 이에 답하는 글을 간단하게나마 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근래에 경건의 의미가 이교적 영성과 혼동되고 있으며, 심지어 상당수의 신학대학에서까지 로마교회 내지는 이교적인 영성훈련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경건훈련을 시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를 이어 프로테스탄트 경건훈련에 기초를 놓은 요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칼빈의 신학과 경건을 이어받은 요한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의 경건훈련을 참고하

여 이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¹⁾ 16세기에 칼빈이 세운 신학과 경건을 18세기에 재현,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게 한 사람이 웨슬리이기 때문이다. 시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칼빈과 웨슬리는 구원관에 있어서 일치를 보이며, 그 구원론의 핵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보이는 경건훈련을 칼빈과 웨슬리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한다.

글은 “영성인가 경건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경건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논한 후에, “경건의 모습인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경건훈련을 위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신학대학의 경건훈련과 그 전망”을 순서로 기술하였다.

2. 영성인가 경건인가?

‘경건’(piety)을 말하기에 앞서 요즈음 이와 유사한 단어로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문제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용어상의 문제를 떠나 신학과 신앙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영성훈련’이라는 용어의 부적합성

요즈음 영성이라는 말은 일반종교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영성이라는 말은 영성훈련(spirituality training)이라는 말이 잘 나타내 주듯이 인간의 훈련과 노력으로 달성하려는 인본주의(humanism)적 개념이 강하게 풍기는 것이 사실이다.²⁾ 영성훈련은

1) “참으로 우리는 Calvin과 Wesley를 성화의 교사(doctrine of sanctification)들이라 불러 마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Calvin신학의 Wesley적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삶 길」(경기도 양평 : 아세아연합신학교출판부, 2004), p. 214.

2) 인본주의적 영성훈련의 한 예로써 예수회의 설립자 이냐시오 데 로욜라(Ignatius

이른바 ‘신비주의’에서 사용할 경우 신비주의의 성격상 신인합일(神人合一)을 그 목표로 하게 된다. 이는 창세기 3:5의 옛 뱀 곧 사탄이 제시한 ‘하나님과 같은 인간’이라는 인본주의적 인간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본주의의 역사를 기독교세계관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옛 뱀 곧 사탄의 유혹에 빠져(창 3:5) 타락하였다.³⁾ 이때부터 인본주의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인본주의는 신비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일반종교의 중심사상은 종교다원주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도 크셔서 인류구원의 계획의 일환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류구원의 크신 작업이 성취된 것이다.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de Loyola)가 그의 저서 「영적수련」(Spiritual Exercise)에서 말하는 영성훈련의 요점은 ‘침묵’(검은 옷을 입은 열혈신도들이 침묵 속에서 기상하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침묵 속에서 음식을 먹고, 침묵 속에서 명상하고, 침묵 속에서 침상으로 돌아갔다)으로써 “예수회의 활동(침묵수련)은 망상체의 움직임은 거의 완전히 망치로 두들겨 맞은 상태에 이르게 한다. 소음도 없이, 지속적인 통제를 받는 열혈신도 주위의 단조로운 의상의 모든 사람들은 망상체의 신경회로 중 약간만이 주위의 그런 환경에 흥분하고 흥분하다가 곧 망상체의 나머지와 함께 거의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다. 이런 수련은 1500년대와 1600년대에 걸쳐 거의 한 세기 동안 유럽의 개신교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 소위 예수를 위한 군사라고 스스로 선언한 예수회 회원들은 도덕적 가책을 받지 않고, 자신들을 고문하고, 손발을 잘라 불구가 되게 하고, 절름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지칭한) 종교적 이단자들을 화형시키는 권능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다”. 데이비드 보더니스, *The Body Book*, 이석인 옮김(서울 : 생각의 나무, 2009), pp. 399-401.

3) “창세기 3:5에서 뱘이 약속한 인간의 모습, 곧 ‘하나님 같은 인간’(homo sicut Deus) --- 하나님의 되고자 하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이다”.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Ⅱ」(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1987), p. 98.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역사적으로 주님의 복음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였고, 말씀과 성령님이 충만한 산 믿음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중세 로마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지나쳐서 교권주의로 흐르게 된다. 로마 주교를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 삼는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다. 자연히 제2의 중보자로서의 마리아숭배와 고백성사라는 이교풍습이 로마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부패 속에서 영적 권위가 약화되자 고대 이교사상에 관심을 갖는 르네상스운동(고전복고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초기 르네상스의 고전 연구는 성경원어연구에 눈을 뜨게 하여, 16세기 루터를 비롯한 칼빈의 종교개혁에 일정한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었고, 산 믿음의 신학운동을 통하여 교권 대신 성경의 권위를 높이게 된다.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한 것이다. 개혁운동의 산 믿음의 신학은 18세기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등이 계승하여 초대 교회 신앙과 신학의 맥을 이루게 되었다.⁴⁾ 즉,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르네상스운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본래 목표하였던 고대 로마와 그리스 이교문화와 그 작품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드디어 고대 인본주의를 현대에 재현한 계몽주의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칸트(I. Kant, 1724–1804)를 비롯한 계몽주의자들이 불러들인 인본주의(딤후 3:1–5)⁵⁾ 이성 중심적 인본주의인 모더니즘(modernism)과 신비주의적 영성중심적 인본주의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는 옷을 입는데, 양자 모두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공통점이다.⁶⁾ 그

4) Korea Calvin Society, *Calvin in Asian Churches* (Seoul :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2008), p. 231.

5) Daniel J. Adams, *Always to be Reformed : Systematic Theology* (Wanju, Jeonbuk : Hanil University Press, 2006), pp. 23–35.

6) 로마교회도 바티칸 제2공의회 때 ‘비기독교종교에 관한 선언’을 통하여, 포용주

러므로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배도의 사상인 신비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므로 다른 용어를 찾아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2) ‘경건훈련’과 그 의미

그렇다면 현재 교계에서와 신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른바 ‘영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프로테스탄트교회 전통에서⁷⁾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경건’(piety)이라는 단어라고 본다(딤전 4:7–8).⁸⁾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데서 비롯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경건이라 부른다.”⁹⁾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참된 경건(true piety)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참으로 주님으로 경외하며, 그분의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심(pure and true zeal)에 있다.”¹⁰⁾라고 표현하였다. 개혁자들의 신학에서 경건은 도덕주의(moralism)와는 확연히 구별되었다. 도덕주의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보려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닫고, 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실하게 신뢰해야 함을 전제로 삼는다. 동시에 개혁

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유석근, 「밝혀진 적 그리스도의 정체」(서울 : 도서출판 예루살렘, 2009), p. 433.

7) Daniel J. Adams, *Lectures on Reformed Theology* (Seoul : Hyung Sang Books, 1990), p. 133.

8) 하워드 L. 라이스, 「개혁주의 영성」(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p. 58.

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 and XXI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ii. 1.

10) John Calvin, *Instruction in Faith ; 1537*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9), p. 19.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게 하시려는 거룩함을 추구하였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없으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데 있다고 보았다.¹¹⁾

경건이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현신과 성별을 의미한다.¹²⁾ 즉, 경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임재에 깊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임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¹³⁾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경건을 위한 교육을 장차 한국교회와 사회,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교회에 나아가 주님의 종으로 사역할 사명자들을 가르치는 우리 개혁신학전통의 신학대학 캠퍼스에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교회 사역자들에게서 경건의 향기를 맡기 힘들다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이기에 경건교육의 위치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3. 경건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경건은 신자나 교역자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에서 우러나오는 열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건의 주체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어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경건의 원천과 능력도 주님 안에서 사역하시는 성령님께 있다.

1) 경건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경건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11) 도날드 G. 블로шу, 「경건의 위기」, 이용원 역(서울 : 소망사, 2000), pp. 47-48.

12) 도날드 G. 블로шу, p. 46.

13) 하워드 L. 라이스, p. 59.

와의 연합’(union with Christ)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결코 사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에서 경건이 오는 것이 아니다. 경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비밀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부여하시는 의롭다 함과 거룩함을 입는 데 있다. 경건의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신자에게 주어지는 ‘산 믿음’의 한 요소인 것이다.

(1)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생명이 신자의 것이 되기 위한 연합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정한 피조물의 지위를 누리게 한다(요 3:16, 요 15:1-12).

우리가 볼 때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주님의 사역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공로가 은혜로 신자의 유익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인 쳐진 변함없는 하나님 지식이다.¹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인 동시에, 그의 은혜에 우리를 초청하여 화해를 성취하도록 자기 자신과 연합하여 교통하게 하신다. 이 연합만이 대속의 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한다.¹⁵⁾ 즉,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그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그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즐기게 된다. 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힘 있게 자기 자신에게

14) *Inst.*, III.iii.2-7.

15) *Inst.*, III.i.

붙들어 매는 끈이시다.”¹⁶⁾

(2)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적 연합

칼빈은 성령님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영적인 연합’이라고 한다. 영적인 연합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본질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입(注入)되어 우리의 본질과 통합되는 것을 말함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모든 축복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¹⁷⁾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합시키시는 데이다. 그러나 믿음은 성령님의 주요한 사역이다.¹⁸⁾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가 성령님의 은밀한 사역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¹⁹⁾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어 있는 우리의 구원의 전체와 그 모든 부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²⁰⁾ 그러므로 이 영적 연합은 인간의 수양이나 초탈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신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신에게 합일을 추구하는 이방종교나 중세 로마교회 신비주의자들의 영성훈련의 극치인 이른바 ‘신인합일’(神人合一)과는²¹⁾ 그 궤를 본질적으로 달리한다. 이방종교철학(일원론이든 이원론이든)은 물론, 이른바 자연과 은총이라는 헬라 이원론사상을

16) “To sum up, the Holy Spirit is the bond by which Christ effectually unites us to himself.” *Inst.*, III.i.1.

17) *Inst.*, III.i.3.

18) *Inst.*, III.i.4.

19) *Inst.*, III.i.1.

20) 나용화, 「칼빈의 기독교강요 개설」(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93.

21) 이정배, “토착화 신학의 영성 탐구,” 「조직신학 속의 영성」, 한국조직신학회 논총 7집(2002. 10) : 232-237.

빌어 신학체계를 세운 로마교회는 특히 중세기에 신비주의적인 신인합일을 추구하였다.²²⁾ 즉,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뒤에 두고 인간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자들, 특히 칼빈은 성령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를 재확립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 속에는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본질과의 합일은 없다. 바로 신인합일이라는 사탄적 사상에 인류의 조상 하와가 넘어가 타락하였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극한적 죄값(피조물이 하나님 되려는 반역 중의 반역행위의 죄)을 십자가 죽음으로 치루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이에 따른 모든 복이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에게 전가되어 경건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2)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칭의와 성화를 묶는 경건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개념은 이미 루터(Luther)에 의해 확정되었다. 그러나 후차적인 문제로 법정적 개념과 성화 내지는 경건과의 갈등이 있었다. 루터의 후계자인 멜란히톤은 이신칭의에 대해 인간의 공로개념을 배제하고,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결받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멜란히톤의 이신칭의 개념은 변화된 삶의 체험이 제외되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루터는 체험적인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encounter)에 대한 말을 많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체험을 강조하

22) Daniel J. Adams,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철학과 인간,” 「신학과 사회」 제10집 (1996. 12) : 257-266. 또한 참고, “제2계명과 단군우상,” 「신학과 사회」 제13집 (1999. 12) : 7-10.

다보면 행위의 공로개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양자의 갈등을 해결하였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가 하나 됨으로 인간 자신의 공로개념을 배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person)과 하나 되는 것이다.

칼빈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로 칭의와 성화 사이의 갈등문제도 해결한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연결시킨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것이며,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장악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믿음으로 칭의받고, 그 결과 신자 개인의 노력으로 성화된다는 구조는 잘못된 것으로 본다.

(1) 칭 의

칼빈은 칭의를 죄의 사면으로 해석하며, 율법의 행위에서 분리시킨다. 칭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가? 믿음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³⁾

칭의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이며, 이 법정적 행위는 그리스도로 인한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²⁴⁾를 내포한다.

칼빈이 칭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중세 로마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어 의인이 된다는 의화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이요, 믿음만이 아니라 인간의 공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공적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은 칭의의 원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직 믿음

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복음에 약속된 의는 ‘믿음의 의’로써, 행위의 의와는 철저하게 구별하였다.²⁵⁾ 율법이 제시한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2) 성 화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되 분리하지는 않는다.²⁶⁾ 이것은 칼빈이 로마교회의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또한 루터의 ‘이신칭의론’을 보다 발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칼빈이 선행론에서 말하려는 요지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듯이 우리의 선행도 똑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위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²⁷⁾

그러나 칼빈의 성화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는 교황주의자들의 공로사상을 배격하기 위함이지, 믿음의 열매로써의 인간의 선행을 포함한 성화를 소홀히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받는 은혜의 열매들로써 모두 그리스도 한 분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칭의와 성화는 경건의 삶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23) *Inst.*, III.xvi.1.

24) *Inst.*, III.xi.4.

25)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서울 : 생명의말씀사, 2000), p. 191.

26) *Inst.*, III.xi.1.6.

27)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 p. 191.

4. 경건의 모습인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경건의 모습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때 나타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다. 즉, 성령님의 열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삶이다.²⁸⁾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열매는 내적인(인격적인) 열매와 외적인(사회적인) 열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요한 웨슬리의 저술을 인용하여 진술하려고 한다. 적어도 구원론의 입장에서 웨슬리는 칼빈의 신학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다.²⁹⁾

1) 내적(인격적) 열매(마 5:1-8, 갈 5:22-23, 베후 1:2-7)

내적인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이다.³⁰⁾ 이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가 성령을 거스르는 모든 원리와 기질을 몰아내고 영혼 안에 존재할 때,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 잘못된 행위, 그리고 의도적으로 범하는 ‘고 범죄’의 끝장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소욕, 그리고 악한 본성의 파멸인 것이다(요일 1:9).³¹⁾ 인격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하여 주어

28)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갈 5:24-26).

29)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 길」(양평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p. 22.

30) 칼빈처럼 웨슬리도 외적인 열매와 함께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촉구하였다. “그대는 온갖 영과 육의 더러움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성결하게 되어 모든 깨끗하지 않은 정욕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총의 힘에 의하여 영혼의 가난함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만으로부터, 그리고 온유함과 긍휼함으로 노여움과 모든 불친절하고 미친 듯이 날뛰는 정욕으로부터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 이외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깨끗이 되어 그대의 마음과 모든 힘으로 주가 되시는 그대의 하나님을 섭길지니라.”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V(Peabody : Hendrickson Publishers Inc., 1991), p. 432.

31) *Works*, VII.19.

지는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덕을 부여받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같이 우리도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형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³²⁾

웨슬리는 내적인 열매에 대한 추구를 “참된 신앙의 여덟 가지 전모(마 6장)에 대한 설교”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경건에 이르는 신앙 성숙의 제일보가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음의 가난’은 우리가 안과 밖의 죄를 의식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무력을 느끼는 마음인 것이다.³³⁾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선한 일과 사유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갈망하여 가지는 안타까움이다. 이러한 애통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자의 마지막에는 평화로운 열매의 축복이 오는 것이다.³⁴⁾ 온유는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의 상태에 대하여 수평을 유지하게 해 주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중용을 유지하게 해 주며, 우로나 좌로나 쓸리지 않게 해 준다.³⁵⁾ 의(義)에 주리고 목마른 것은 우리의 영적인 욕구들 중 가장 강력한 욕구로써, 이 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하는 영혼을 세상이 말하는 종교가 만족시켜주는 것은 불가능하다.³⁶⁾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굽주려 있는 사람에게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결코 휴식을 얻지 못한다.³⁷⁾ 그러므로 웨슬리는 “당신이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은 당신에

32) *Works*, XI,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p. 6.

33) *Ibid.*, I.18.

34) *Ibid.*, II.3.4.

35) John Wesley, *Sermon XX* ;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Discourse 2, I -3.

36) *Ibid.*, II.4.

37) *Ibid.*

게 의에 주리고 목마름을 주셨다면 그 귀중한 선물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라.”³⁸⁾라고 강권한다. 그리고 궁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이웃들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³⁹⁾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정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씻음을 받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로 온전히 경건에 이른 자”⁴⁰⁾이다.

이렇게 경건의 삶은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로 나타난다.

2) 외적(사회적) 열매(행 1:8, 마 5:9-16)

성령의 외적(사회적) 열매는 복음전도의 열매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대사회적인 사랑과 공의가 그것이다. 성령의 내적 열매 속에서 경건의 삶이 자리하듯이 성령의 외적 열매와 함께 경건의 삶은 존재 한다. 그 주요 외적 열매로는 복음전파의 열매,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들 수 있다.

(1) 복음전파의 열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성령의 주된 외적 열매이다. 성령세례를 통하여 권능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행 1:8). 복음전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웨슬리는 성령의 체험을 한 지 18일 후 옥스퍼드 대학 앞뜰에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그는 불타는 열정으로 ‘뉴 케이트 감옥’에 수용된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웨슬리는 영국교회 지도자들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1739년 4월 2일

38) *Ibid.*, II.6.

39) *Ibid.*, III.1.

40) John Wesley, *Sermon XXIII*; *Discourse 3*, I.2.

부터 야외설교를 시작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여 노천에서 전도하는 그를, 예의범절만 찾던 영국교회의 목사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웨슬리는 야외설교를 통한 복음전파의 기쁨을 맛보았다.⁴¹⁾ 그의 새로운 선교방법에 대해 성도들이 걱정을 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경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능력에 따라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악한 자를 바로잡고 덕이 있는 자를 견고하게 해 주라고 명령하신다. 그런데 내가 다른 교구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사람도 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나는 이 세계를 나의 교구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⁴²⁾

우리는 복음전파를 통한 성령의 외적 열매와 함께 경건의 삶과 훈련이 존재한다는 것을 웨슬리의 복음전파 사역에서 읽을 수 있다.

(2) 사랑과 공의의 열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내적인 열매와 복음전도의 열매는 물론 대사회적인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기도 하다(마 5:9-16).

산상수훈의 후반부의 말씀들도 외적 열매에 대한 주님의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의 ‘내적 성결’을 ‘외적 행동’으로 표현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화평케 하라는 말씀으로 보이신 것이다.⁴³⁾ 이 말은 경건이 인격적인 내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 선행으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41) Richard P. Heitzenrater, *The Elusive Mr. Wesley* vol. 1 (Nashville : Abingdon Press, 1984), pp. 105-14.

42) *Works(A)*, vol. IX, pp. 31-46.

43) *Ibid.*, II.1.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는 말씀은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험보다 더 신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주님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 43-44)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요, 본질이기 때문이다.⁴⁴⁾

웨슬리의 사회성은 칼빈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회적으로 보고, 개혁을 교회 내부에 치우치지 않고 ‘제네바’라는 당시의 도시국가와 세계를 향하여 개혁을 시도하였다.⁴⁵⁾ 그런데 웨슬리의 성화론에도 사회를 온전히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러한 칼빈이나 웨슬리의 사회성 역시 그 본질적 원천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주님은 복음의 사회성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 13-16)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 즉 ‘산 믿음’의 원리를 내면의 간신을 위한 신앙과 외면적 행위가 따르는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공동체적) 신앙의 본질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44) *Works*, V, *Sermon XXIII*;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Discourse 3. (iv)

45)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7), pp. 78-170.

3) 경건한 삶과 구원의 관계⁴⁶⁾

경건한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을 추구하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배설물과 쓰레기처럼 여기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에 달린 회개한 강도와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의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이며,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지라도 내 자신의 영혼은 잃은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산 믿음(living faith)을 추구해야 한다. “주님, 제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옵시고, 저의 믿음을 복돋아 주옵소서. 제게 믿음이 없사오면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웨슬리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⁴⁷⁾라고 반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의 원천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내적 외적 열매를 맺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 따라서 경건한 삶은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임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경건한 삶은 구원과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약 2: 26).

46)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로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벧후 1: 8-11).

47) Lord, increase my faith, if I now believe! Else, give me faith, though but as a grain of mustard-seed! -- But "what doth it profit, if a man say he hath faith, and have not works? Can that faith save him?" O no! *Works*, V, *Sermon XXIII*, p. 5.

5. 경건훈련을 위한 말씀과 기도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경건한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갈 5:16-18).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다. 경건의 주관자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겸으로써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성령님의 겸으로써의 말씀

교회는 오직 외면적인 복음의 말씀선포에 의해서만 성장하며, 성도들은 한 결속에 의해서만 결합된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증진함으로써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질서를 지키고, 단계적으로 신앙이 향상된다.⁴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부폐성 보다 더 강력한 것이므로, 우리 육체의 거친 무절제를 통제하며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악을 바로잡는 교정 수단의 역할을 한다.⁴⁹⁾ 루터도 구원에 이르는 경건생활에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당신은 성서가 다른 모든 책들의 지혜를 어리석음으로 판명해 버리는 그런 책이라

48) *Inst.*, IV, i, 5.

49)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trans. James Anderson (Grand Rapids, Michigan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pp. 317-320.

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서만이, 그리고 성서 이외의 어느 책도 영생에 관해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⁵⁰⁾

성경을 읽고 증거하거나 들을 때, 성경을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경관이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은 성경을 보는 바른 렌즈를 상실하였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게 되며, 결코 경건에 이를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교육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 없이 증거하기도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그리고 특히 지난 200여 년 동안의 성경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도록 그릇된 방향의 성경교육이 시행되어 왔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⁵¹⁾

본래 생명의 복음은 아시아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 가는 길에 유럽을 복음화하여, 사도들과 16세기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과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리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복음은 크게 왜곡되지 않고 지켜져 왔다. 이렇게 18세기는 아름다운 신앙부흥의 세기였으나, 동시에 이성을 우상화하는 계몽사조의 시대이기도 하다. 칸트는 이 시기에 사상적 주역을 담당하였다. 그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⁵²⁾라는 저서 속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훈을 거부하고, 그의 윤리적인 종교관을 주장한다. 그는 모든 인식 대상들을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현상계(phenomena)와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본체계(noumena)로 나누어 이해하였다. 본체계에 대해서 칸트는 불가지론을 취하며, 순수이성의 영역이

50) Oswald Bayer, *Theologie* (Gutersloh : Gutersloher Verlag, 1994), p. 71. 정홍열, “루터의 신학과 영성,” 「조직신학속의 영성」, 한국조직신학논총 7집 (2002), p. 24에서 재인용.

51) 유태주, “칼빈이 제시한 성경의 신빙성,” 「칼빈의 구원관과 경건한 삶」(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pp. 16-22.

52) Immanuel Kant,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rans. Norman Kemp Smith (London : Macmillan and Co., 1953), 신옥희 역, 「이성의 한계 안에 서의 종교」(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4-94).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칸트의 이원론이 기독교신학에 주는 의미는 종교의 대상이 더 이상 사실의 영역에 관계되지 않고, 신앙의 영역에 관계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로 자유주의 신학에 도입되어 신학의 영역을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이원론적 구도에서 보게 되고, 가치판단만을 신학의 영역으로 보게 된다.⁵³⁾ 즉, 칸트의 이러한 사고는 기독교를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맹목적인 가치체계로 보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성으로 대체시킨 칸트를 비롯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다. 옛 뱀 곧 사탄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하였듯이(창 3:1), 인본주의 사조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과 권위에 대한 불신과 배신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칸트의 인본주의는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여 년 동안 기독교신학에 침투하여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등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릇된 방향의 성경교육을 통하여⁵⁴⁾ 경건교육의 변질 또한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신학적 혼란의 시대에, 성경교육을 통한 경건훈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신학대학의 교사들은 사도적인 바른 성경교육을 할 사명이 있다. 신학의 교사가 성경을 왜곡시켜 말할 때, 그리스도관이 왜곡되고 바른 신앙을 잃어버려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신학의 교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때,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으며,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됨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참된 그리스도

53) 한상화, 「포스트모던사상과 복음주의 신학」(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pp. 69–70.

54) 유태주, “칼빈이 제시한 성경의 신빙성,” 「칼빈의 구원관과 경건한 삶」, pp. 19–22.

인이 되고, 목사가 되며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성령님의 권능과 기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경건한 삶을 살려면 말씀과 함께 기도가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선이란 것은 전혀 없고, 구원에 도움이 될 것도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곤란에 빠진 자기를 구해 낼 힘은 자기 밖에서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⁵⁵⁾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선물들을 찾으며, 기도로 구해야 한다.⁵⁶⁾ 우리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고 마비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도와주시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⁵⁷⁾. 칼빈은 기도의 필요성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요약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기도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 일 듯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하나님께 알려 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시 145:15–16). 넷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섯째로,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섯째는,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분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⁵⁸⁾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55) *Inst.*, III.xx.1.

56) *Inst.*, III.xx.1.

57) *Inst.*, III.xx.3.

58) *Inst.*, III.xx.3.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하시는도다”(시 145:18)라고 하신 주의 중거가 참된 말씀이다.⁵⁹⁾ 그리고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⁶⁰⁾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그 준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너그러운 화해를 얻기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용서하지 않으신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실 수 없기 때문이다(시 25:7, 18, 요일 1:9).⁶¹⁾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며 불변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다(요일 2:2, 딤전 2:5).⁶²⁾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려야 한다(마 6:10).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며, 우리의 뜻을 재갈로 제어하듯 함으로 해서 감히 하나님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원을 조정하시며 지도하시도록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시키는 것이다.⁶³⁾

그런데 온전한 기도는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도는 인간의 심령에 있는 절박한 필요와 감사의 동기 때문에 드리지만, 본성적 충동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고취되어서는 안 된다. 즉 흥적인 충동에 의해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⁶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바르고 신실하게 기도드릴 수 없는데, 그

59) *Inst.*, III.xx.3.

60) *Inst.*, III.xx.9.

61) *Inst.*, III.xx.3.

62) *Inst.*, III.xx.17, 20.

63) *Inst.*, III.xx.50.

64) 김재성, “기독의 원리와 그 언약적 특성,” 「신학정론」 제16권 2호(1998년 11월) : 409-10.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 까지 주장하시기 때문이다.⁶⁵⁾ 그러므로 사도들이 성령강림을 위하여 전적으로 기도에 힘쓴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드려야 한다”.⁶⁶⁾

칼빈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서 경건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을 추구하고 있다.

6. 신학대학의 경건훈련과 그 전망

지금 프로테스탄트교회 산하 신학대학의 경건교육이 선교 1세기를 넘어선 역사 속에서 일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불과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초기에 강화되었던 장로교회의 경건훈련이 지금은 전반적으로 사라지거나, 로마교회의 혼합주의적 영성훈련이 경건교육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교회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교역자(선교사, 목회자, 신학교사 등) 후보생들이 경건훈련과 그 교육을 생존의 무기로 삼아야 할 때를 맞이하였다. 물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경건이 사라진 교회나 신자 개인이나 기독교대학은 그 생명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개혁자들이 가졌던 경건훈련과 그

65) “And further, we cannot call on God rightly and sincerely except by the guidance and teaching of the Holy Spirit; for he it is who not only dictates our words, but also creates groanings in our hearts.”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trans. from the Latin, John Owen, p. 435.

66) “—, we should be instant in prayer, that we may gain daily increase of the Spirit,” John Calvin, *The Acts of the Apostles*(1-13), trans. John W. Fraser and W. J. G. McDonald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 1973), 1:14 ; 38.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과 웨슬리를 비롯한 사도적이며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교회 신학대학들은 성경교육과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교육과 기도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고 있다. 우리가 상당한 경건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많은 장로교회에 속한 신학대학 졸업생들이 선교사로, 일선 목회자로서 한국과 세계에 나아가 일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열매 맺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성경교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경건훈련이 필요함을 느낀다. 지금 21세기는 포스트모던 인본주의 시대로써, 가치 부재와 물질만능의 세속적인 물결이 너무 거세게 도전해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로교회 신학대학의 성경교육은 우선 교사 된 우리가 칼빈처럼 “순수한 경건의 교리를 보존하여 교회를 유익하게”⁶⁷⁾ 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질적으로 바른 성경관에 서야 할 것이다.

신학대학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한 경건교육도 상당한 진전이 있으나, 학생들의 예배와 기도가 실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경건생활 차원의 점검과 지도가 요구된다. 친구관계, 이성학우 간의 예절과 질서, 주거(생활관, 하숙, 원룸, 자취 등)환경에 대해 지도교수와 담당직원과 대학원생들이 지도 팀을 구성하여 상담과 심방을 하는 것과 같은 배려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삶의 자리를 파악하고, 개선하며, 지도하면서 예배와 신앙교육을 시킬 때, 학생들이 방황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고 기독교 예비지도자다운 바른 삶으로 전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염려하지 말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 날까지 우리

67) *Inst.*, I. “독자에게 드리는 글”

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마 28:20).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한, 사도적인 신앙과 신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전통의 교회에 소속된 신학대학들의 전망은 밝다고 본다.⁶⁸⁾

7. 맷음말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배도의 사상인 신비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프로테스탄트교회 전통에서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경건’이라는 단어라고 본다(딤전 4:7-8). 칼빈은 “참된 경건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참으로 주님으로 경외하며, 그분의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심에 있다.”⁶⁹⁾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경건이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성별을 의미한다. 즉, 경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임재에 깊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임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68) 칼빈과 웨슬리를 비롯한 프로테스탄트전통의 신앙과 신학의 기조는 로마교회의 혼합주의적인 신학체계와는 다르게, 초대교회의 성경관과 신앙과 신학을 철저하게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건훈련도 성경에 따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함과 거룩함을 받는 은혜)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전통의 신학은 이방종교들(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 등)과 로마교회가 추구하는 이른바 신비주의적 영성훈련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적인 신앙과 신학의 전통에서 있는 프로테스탄트전통의 교회에 소속된 신학대학들이 그 믿음과 신학을 지키며 발전시켜 나아갈 때, 그 전망은 밝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프로테스탄트전통의 교회에 소속된 신학대학들이라도 사도적인 바른 믿음과 신학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면, 그 앞길이 밝지 못할 것이다.

69) John Calvin, *Instruction in Faith*; 1537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9), p. 19.

경건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결코 사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생명이 신자의 것이 되기 위한 연합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정한 피조물의 지위를 누리게 한다(요 3:16, 요 15:1-12). 칼빈은 성령님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영적인 연합’이라고 한다. 영적인 연합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본질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입되어 우리의 본질과 통합되는 것을 말함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모든 축복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신에게 합일을 추구하는 이방종교나 중세와 현대에도 로마교회 신비주의자들의 영성훈련의 극치인 이른바 ‘신인합일’과는 그 궤를 본질적으로 달리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신자에게 칭의와 성화의 은혜가 주어진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것이며,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장악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믿음으로 칭의받고, 그 결과 신자 개인의 노력으로 성화된다는 구조는 잘못된 것으로 본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칭의와 성화는 경건의 삶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다.

경건의 모습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때 나타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다. 즉, 성령님의 열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삶이다(갈 5:24-26).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열매는 내적인(인격적인) 열매와 외적인(사회적인) 열매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의 경건의 원천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내적, 외적 열매를 맺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 따라서 경건한 삶은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임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경건한 삶은 구원과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약 2:26).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경건한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갈 5:16-18).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다. 경건의 주관자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꿈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프로테스탄트교회 산하 신학대학의 경건교육이 선교 1세기를 넘어선 역사 속에서 일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교회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교역자(선교사, 목회자, 신학교사 등) 후보생들이 경건훈련과 그 교육을 생존의 무기로 삼아야 할 때를 맞이하였다. 물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경건이 사라진 교회나 신자 개인이나 기독교대학은 그 생명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개혁자들이 가졌던 경건훈련과 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과 웨슬리를 비롯한 사도적이며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교회 신학대학들은 성경교육과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교육과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가 상당한 경건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많은 프로테스탄트교회에 속한 신학대학 졸업생들이 선교사로, 일선 목회자로서 한국과 세계에 나아가 일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열매 맺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성경교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경건훈련이 필요함을 느낀다. 지금 21세기는 포스트 모던 인본주의 시대로써, 가치 부재와 물질만능의 세속적인 물결이 거세게 도전해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교회 신학대학의 성경교육은 우선 교사된 우리가 칼빈처럼 “순수한 경건의 교리를 보존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질적으로 바른 성경관과 세계관에 서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19세기 아래 시작된 신학의 변질과 배도가 극에 달할 세기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도적인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는 프로테스탄트 경건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를 경건훈련에 적용하는 지혜와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자가 될 사명자 교육, 특히 이들의 경건 훈련교육을 맡은 신학대학과 교사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과 신학을 재정립하고 기도드리면서 헌신할 때, 장차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만방에 나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훌륭한 주님의 종들이 배출되어,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를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soli Deo gloria!

■ 주제어 ■

프로테스탄트교회, 로마교회, 경건, 영성,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인합일,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열매

한국칼빈학회 약사

한국칼빈학회의 뿌리는 1963년에 결성된 ‘한국칼빈신학연구회’에 있다. 한국칼빈신학연구회는 1963년 12월 10일 대한기독교서회 회의실에서 51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지면서 출발하였다. 당시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장로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 칼빈의 신학이 별로 소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적 근거를 칼빈의 신학에 둔다고 하는 한국 장로교회 내의 대다수의 목사들은 칼빈주의와 칼빈신학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몇몇 목사들이 1963년 11월 7일 하오 6시부터 9시까지 연세대학교 총장 공관에 모여 토의한 결과, 그 모임을 발기인회로 하고 창립총회 소집 준비위원 3명으로 유호준, 김정준, 이종성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해서 창립된 한국 칼빈신학연구회는 초대회장에 한경직, 총무 겸 서기애 이종성을 선출하였다. 그 외의 임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회계에 정세빈, 부회계에 정석복, 그리고 당시에 3개의 부서가 있었는데, 연구부에는 한철하(부장), 김정준, 전경연, 한태동, 도양술, 이영현, 지동식이, 출판부에는 안광국(부장), 김관석, 성갑식, 정하은, 정석복, 정세빈이, 서무부에는 윤인구(부장), 마삼락, 강신명, 유호준, 이영찬, 이종성이 포함되어 있었다.